

# “섬진강 · 주암댐 조절 실패 책임져라”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 · 군의회 의장단

“수자원공사 ·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후 총체적 보상 요구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 · 군의회 의장단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 및 이에 따른 수해 보상을 촉구했다.

19일 전남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시 · 임실 · 순창 · 곡성 · 구례 · 하동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물었다.

섬진강 하류 지역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8명 사망, 40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 폭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섬진강댐의 경우 1%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든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1869t을 급작스

럽게 방류하고 주암댐도 1000t을 방류해 섬진강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섬진강댐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홍수조절 역할을 남겨두지 않은 댐 운영의 결과가 고스란히 이번 피해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장단은 “섬진강댐 수위를 예년보다 10m 높게 유지함으로써 홍수기를 대비해 ‘물그릇’을 비워둬야 하는데도 사실상 홍수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수위조절을 운영해 놓고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맞으며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장단은 최근 곡성과 구례군 등을 삼킨 수해의 원인은 환경부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 · 군의회 의장단(임실 · 순창 · 남원 · 곡성 · 구례 · 하동 · 광양)이 18일 남원시의회에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주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60% 수위를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 관리 일원화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 · 감독 부처인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에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저수량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 조절 역할을 잃고 하류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의장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하며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7개 시 · 군 지역주민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 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교회서 잠자던 신도 둔기로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옆에 있던 30대 남성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교회에는 A씨 등 3명과 목사가 함께 있었으며, 신도들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 등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바다에 빠진 여성운전자, 어선 선장이 살렸다

바다로 추락한 차량의 운전자를 선장이 구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48분경 전북 군산 비응도 동 비응항에서 여성(39)이 운전하던 회색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

조업을 마치고 임항 중이던 어선의 선장 김균산(45)씨가 이를 발견, 뱃머리를 돌려 사고 지점으로 다가가 뛰어 들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탈출을 도울 목적이었지만, 차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자 배로 다시 올라왔다.

잠시 뒤 추락한 차량의 물품들이 물 위로 올라왔다.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것이다. 이를 본 선장 김씨는 다시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했다.

## 부산 오피스텔 전기레인지서 불...50명 대피

20일 0시 5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7층 A(20대)씨의 집에 설치된 전기레인지(인덕션)에서 불이 났다.

신고자인 이웃은 경찰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불이 나자 오피스텔 입주인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전기레인지 등을 태워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기레인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집 안에는 고양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동거녀 아들 살인미수 70대, 2심서 징역 4년

같이 살던 여성을 폭행하고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0일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보인 언동을 보면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다”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더라도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후유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75세 고령인 점,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는 점, 소주 4-5병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동거녀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모멸감 줬다” 광주시의회 원구성 갈등 여진

김용집 의장 등 기자회견서 공개 사과



후반기 원구성 과정의 갈등을 공개 사과하는 광주시의회 의장단.

제8대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갈등의 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조석호 · 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운영위원장, 김점기 예결위원장은

20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은 후반기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김점기 의원과 박미정 의원 간 갈등을 사과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모멸감을 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다.

김 의장 등 의장단은 “항후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동료 의원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란표’로 예결위원장에 낙선한 최영환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최 의원을 만나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의장단이 상시 소통하면서 협업을 활발하게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의원 간 갈등이 빚어졌다.

김민정 기자

## 박광태 GGM 대표 사과

“작업자 사망사고 송구”

광주형일자리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건설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진 가운데 박광태 대표이사가 사과를 표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불미스런 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장례 등 사고수습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경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던 A(63 · 여)씨가 고가사다리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차량이 후진하던 중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